



즉시 배포용: 2022년 10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 전역의 언어 접근성 정책 법제화 및 확대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접근성 사무국' 출범 발표

전국을 선도하는 정책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뉴욕 주민이 개선된 언어 접근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주정부 기관은 의무적으로 필수 서류를 뉴욕주 비영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개 언어로 번역

정부 기관은 지역 수요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언어를 추가하는 것 가능

새로운 사무국은 주정부 기관 전반적으로 정책 감독 및 지침 제공

주정부 기관 언어 접근성 계획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회계연도2023 제정예산(Enacted Budget)의 일환으로 법제화된 주 전역 언어 접근성 정책 확대를 감독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언어 접근성 사무국(Office of Language Access, OLA)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언어 접근성의 전국적인 리더로서 뉴욕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Hochul 주지사가 2022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어젠다에서 밝힌 의지를 이어갑니다. 전국을 주도하는 주 전역의 언어 접근성 정책 법제화 및 언어 접근성 사무국 설치에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뉴욕 주민, 특히 이민자에 대한 주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The Statue of Liberty)은 뉴욕이 모두를 환영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언어 장벽을 넘어 주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민자를 비롯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뉴욕주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언어 접근성 조치 법제화 및 확대를 통해 뉴욕주의 모든 주정부 기관은 의무적으로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여 언어 접근성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주요 기관 문서를 통계청(Census

Bureau) 데이터 기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영어 외국어 **12개**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어는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벙골어, 한국어, 아이티 크리올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우르두어 등입니다.

주정부 기관은 또한 필수 **12대** 언어 이외에도 지역 언어 접근성에 대한 요구,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최근 유입 이민자들의 수, 커뮤니티 그룹의 피드백, 타기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된 영어 능력 구사층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주요 정부 문서의 경우 최대 **4개의**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언어는 언어 접근성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이 결정하며, 이는 서로 다른 당국과 주 내 다른 지역마다 특정 언어에 대한 접근성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주정부 예산에서 **200만 달러**의 자금이 언어 접근성 사무국 설치를 위해 배정되었으며, 이는 일반 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에서 독립되어 주 전역 언어 접근성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 당국들에 대한 주요 감독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추가 언어로 문서를 번역하려는 기타 주정부 기관에 자금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Jeanette Moy 뉴욕주 일반서비스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GS는 뉴욕주가 새로운 언어 접근성 지원청을 설치하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뉴욕 주민에게 정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뉴욕 주민은 우리 뉴욕주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요 서류, 정보,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전반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Margarita Larios 뉴욕주 언어 접근성 사무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 접근성 사무국의 설치를 통해 법제화된 언어 접근성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뉴욕주 주민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매우 큰 성과입니다. 언어 접근성 사무국 설치를 통해 우리는 영어로 말하거나 쓰거나 읽을 수 없는 뉴욕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감독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 Jeanette Moy OGS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발표는 **2011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된 뉴욕의 기존 언어 접근성 정책이 크게 확대되고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정부 기관은 문서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영어 언어 여섯 개로 번역해야 했으며, **2021년**에서는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언어 접근성 법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언어 접근성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이 사람은 OLA와 협력해 컴플라이언스를 감독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기관은 새로운 법 시행 이후, 90일 내에 언어 접근성 계획을 게시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현재 기관의 언어 접근성 계획은 [OL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언어 접근성 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번역 문서의 제목과 이용 가능한 언어.
- 2개 언어 구사자 직원 정보 및 구사 언어.
- 내부 모니터링 계획.
- 기관이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중 홍보 방법에 대한 설명.
- 기관의 언어 접근성 정책에 대한 연례 훈련과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기관 직원 훈련 계획.
- 법에 따른 상위 12개 언어 외에 추가 번역을 제공하는 언어를 결정하는 기관 절차에 대한 정보.
- 기관 언어 접근성 코디네이터 정보.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